

기도해야 원하는 것이 된다

본 문 마태복음 7장 7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는 ‘기도해야 원하는 것이 된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첫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 둘째, 기도할 때 왜 잡생각이 생기는지 / 셋째, 어떻게 기도를 안 졸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를 깊이 할 수 있는지 / 넷째, 어떻게 해야 성자와 일체 되고 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기도해야 원하는 것이 된다.’에 대해서 한 동작씩 쉽고 깊게 잠언으로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쉽게 깊이 있게 깨닫기 바랍니다.

1. 기도해야 원하는 것이 된다.
2. 기도는 삼위일체께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다.
3. 기도해야 줄 것은 자기가 기도하든지, 다른 사람이 기도하든지 기도해야 준다.

4. 기도는 삼위일체의 법이라서, 기도해야 준다.
5.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야 곡식이 나듯이, ‘기도’라는 씨를 하나님께 뿌려야 그로 인한 대가를 주신다. 조건 대 대가다. 기도해야 주신다.
6. 기도는 자기 입장에서만 하면 안 된다. 기도는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입장에서 해야 된다. 기도가 합당해야 들어주신다.
7. 기도는 3일, 7일, 21일, 40일, 70일씩 해야 된다. 급할 때는 순간이라도 기도해야 삼위일체가 듣고 들어주신다.
8. 시궁창에 빠진 자가 애를 태우며 벗어나려 하듯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9. 기도는 좌절하지 말고 성자와 주를 부르며 간절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성자와 주가 말씀한 것을 지키고, 성자와 주를 사랑하며, 하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신다.
10.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늘의 법대로 주신다.
11. 기도한 것을 주실 때는 합당하게 주신다. 고로 받은 것을 지혜로 깨달아야 된다.
12. 가령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돈을 주고 살 것을 주실 때가 있다. 고로 받은 것이 돈이 아니더라도 지혜로 깨달아야 된다.
13. 기도한 것을 성자가 사람을 통해 주신다. 고로 분별하고 성자가 사람을 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14. 기도의 응답은 여러 가지로 온다. 마음으로 “걱정 말아라.” 하는 응답이 오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감동되기도 하고,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이나 만물을 통해 계시해 주기도 한다.
15. 휴거 때라 휴거에 대한 일이면, 기도를 더욱 잘 들어주신다.
16. 하나님과 성자와 그 분체에게 죄를 고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며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말 한마디로 엄청난 죄를 사함 받게 된다.
17. 성자를 대신한 분체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진정 고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말 한마디에 용서된다. 고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거듭 죄를 짓게 된다. 그때는 3년, 4년, 7년씩 죄를 안 짓는 조건을 세우고 회개하고 와서 고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조건을 세워야 된다.
18. 죄를 심상히 여기고 쉽게 죄를 짓는 자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그 육도 영도 사망에 처해 살게 된다.
19. 죄를 지으면, 회개는 ‘말과 행실’로 해야 된다.
20. 육신이 죄를 지으면 육신이 죄의 대가를 받고, 마음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죄의 대가를 받는다.
21. 죄를 짓고서 또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3개월, 7개월, 1년씩 죄를 안 짓는 조건을 세우고 와서 회개해야... 성자께서 “너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쳤구나. 그만큼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며 죄와 멀리 떨

어저 살았구나. 믿고 용서해 준다.” 하신다.

22. 행실로 죄를 안 짓는 의로운 조건을 세우고 깨끗함을 보여 줘야... 성자께서 “너는 정말 죄를 안 지으려 하는구나. 믿고 인정한다. 고로 용서해 준다.” 하신다.
23. 죄를 밥 먹듯이 가볍게 여기고 죄짓는 것을 생활화하면, 조건이 붙어서 근신 기간을 1년, 3년, 7년씩 준다. 근신 기간 중에 죄를 지으면, 또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로 인해 가중된 형벌을 받고 살게 된다.
24. 죄를 짓고 회개하는 조건을 세워야 용서한다. 용서받았어도 근신 기간을 1년, 2년, 3년, 4년, 혹은 7년씩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만큼 죄와 떨어져 죄의 주관권을 벗어나게 된다.
25. 하나님과 성자께 자기 죄를 고하면, 어느 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네가 대신 형벌을 감당하여라. 그러면 죄가 용서된다.” 할 때가 있다. 죄값으로 인한 형벌은 평생 가기도 하니, 모두 천국에 가려면 죄를 안 짓도록 생명권에서 살아야 된다.
26.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죽음’으로 대신했다.
27. 에스겔 선지자도 백성들의 죄와 시대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자기가 감옥에 가서 죄의 대가를 대신 받았다.
28. 공적을 세우고 죄를 고해야 용서하는 것이 다르다. 전도 조건, 회개 조건 등 각종 조건을 세우며 회개하기다.

29. 죄는 사탄이 조건을 붙이고 주관하니, 엄하게 다뤄야 된다.
30.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 구원받거나 휴거되는 영은 하나도 없다.
31. 죄를 지으면, 영이 사망으로 가서 쫓값으로 사망의 주관을 받고 살게 된다. 고로 약해져서 영이 육과 함께 생명권의 삶을 포기하게 된다. 고로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육도 영도 사망권을 벗어난다.
32. 죄로 인해 육도 영도 화를 받고 고통을 받는다. 회개하여 용서받고 사망권을 벗어나야 된다.
33. 죄는 자기 영을 죽인다. 고로 자기 영이 죽지 않게 회개기도를 하여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34. 어떤 10대 소녀는 수년간 담배를 피우다가 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6개월 동안 참고 견디며 안 피웠다. 그리고 자기 과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다. 이를 성자에게 고하니,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조건을 세웠기에 용서한다고 전해 주어라.” 하셨다.
35. 모든 죄도 끊으려고 몸부림치며 조건을 세우고 회개해야... 성자께서 그 조건을 보고 믿고 인정하고 용서해 주신다.
36. 말로 회개했을 때 그냥 용서해 주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쉽게 죄를 짓게 된다. 용서받아 놓고서 또 거듭 죄를 지으니, 자기도 민망하여 그때는 회개도 못 하고 포기한다. 고로 어느 기간 동안 죄를 안 짓는 조건을 세우고 회개하라는 것이다.

37. 혈기, 분노, 말을 거칠게 하는 성격도 모두 같고 닮으면서 조건을 세워라. 그래야 성자께서 그 의를 보고 믿고 인정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용서하신다.
38. 죄를 지으면 그냥 용서해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아라. 죄를 안 짓기 위해 몸부림친 ‘근거’가 있어야... 성자도 행한 대로 용서해 주신다. 본인이 죄를 안 짓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받았어도 또 쉽게 거듭 죄를 짓게 된다.
39. 불쌍해서 성자께서 잘되게 해 주셨는데, 자기가 잘되고 형통하니 성자와 분체를 멀리한다. 고로 성자는 축복을 거두신다.
40. 기도할 때 드는 잡생각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의 말과 뒤의 말을 계속 이어서 만들면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틈에 잡생각이 들어가서 온갖 잡생각을 하게 된다. 기도할 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잡생각이 생긴다.
41.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하고 싶은 말을 연속해야 중간에 틈과 공간이 없어서 잡생각이 안 생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그러하다.
42. 뇌는 가만히 있으면, 잡념으로 시동이 걸려 버린다.
43. 어린아이를 보아라. 가만히 두면 제멋대로 잡행(雜行)을 한다. 어린아이를 자기 뇌로 보아라. 가만히 두면 제멋대로 잡생각을 한다.
44. 뇌는 예민하여 자극을 주는 대로 느끼고 행한다. 그러니 줄리면 머리

에 자극을 주어라. 졸릴 때 머리만 감아도 뇌가 자극을 받고 잡생각을 안 한다. 졸릴 때 머리를 손으로 치면서 책망만 해도 딴 생각을 안 한다.

45. 뇌가 딴 생각을 할 때는 손으로 자기 머리를 ‘툭’ 치면서 책망해라. 그러면 뇌가 정신을 차리고 꼭 죽을 곳에서 살기도 한다. 운전할 때나, 전쟁터에서 적을 앞에 놓고 있을 때나, 절벽에 앉아 있을 때나, 건널목을 건너갈 때나, 생활 가운데 수백 가지 상황에서 자기 뇌를 자극시키며 행하여라.

46. 잡생각이 들거나 졸릴 때는 자기가 성자의 이름으로 자기 뇌에 자극을 주면서 책망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다스려라. 사전에 뇌를 다스리는 것이 사고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다.

47. 뇌가 졸려서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마음과 정신도 뇌에 의해서 혼미해져 모른다. 고로 즉시 뇌에 자극을 주어 그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 절벽에 앉아 있는데 존다고 생각하고, 한 번에 이동해야 된다.

48. 생각의 근본체인 뇌가 졸 때는 생각도 흐려져 졸게 된다. 까마득한 절벽 위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즉시 뇌에 자극을 주고 행해야 된다.

49.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피곤하다.” 라고 말한다. 마음은 정신체다. 고로 피곤하지 않다. 뇌가 피곤한 것이다. 뇌가 피곤하니, 뇌의 결과체인 마음도 혼미하고 생각도 흐리고 피곤한 것이다.

50. 뇌와 몸은 물체다. 고로 뇌와 몸이 하루 종일 일하면 피곤하다. 이때 피곤한 뇌에 의해서 마음도 피곤하다. 이때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마음에 피곤함이 없고 생각이 총명하다. 마음이 잔 것이 아니다. 육체이며 물체인 뇌와 몸이 자서 피곤이 풀린 것이다. 뇌에 피곤함이 없으니, 마음과 생각도 피곤함이 없고 총명해진 것이다.

51. 기도할 때 자꾸 조는 것은 조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다. 뇌와 몸이 조는 체질과 습관이 들면, 그 시간이 되면 항상 졸게 된다.

52. 사탄은 뇌의 신경을 자극하여 졸게 한다. 또 자기가 졸면, 앞에서 졸음 파장을 보낸다. 이때 즉시 기도해 보아라. 기도해 보면, 사탄이 뇌의 신경을 자극하여 졸게 하는 것인지, 자기가 졸아서 사탄이 졸음 파장을 보내는 것인지 바로 안다.

53. 뇌에 잡생각이 들어와 작동되면, 졸게 된다.

54. 뇌가 잡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사탄이 끼어들게 된다.

55.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 페달을 연속해서 밟아야 안 넘어진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을 계속 연결시켜 해야 잡생각을 할 틈이 없어서 ‘사탄’도 침범하지 못하고 ‘졸음’도 침범하지 못하여 기도를 깊이 하게 된다.

56. 뇌는 그 기능 자체가 집중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잡생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일을 할 때마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해야 된다.

57. 뇌의 본질은 생각이 강하지 않고서는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시동이 걸려서 그대로 흘러간다.

58. 뇌는 가만히 놔두면 잡생각의 뇌가 된다.

59. 뇌를 놀리지 말아라.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뇌의 실상은 ‘생각과 몸’으로 즉시 증상이 나타난다.
60. 뇌는 예리해서 자기가 말로만 명령해도 바로 방향을 돌려 원위치로 간다. 또 뇌는 예리해서 말로 명령한 대로 자동기계처럼 돌아간다.
61. 뇌에서 성적인 것을 생각하고 구상하여 죄를 지으면, 바로 자기가 책망하고 못 하게 해야 된다. 뇌에서 그런 생각을 하도록 그냥 놔두면, 마음의 죄를 짓게 되고, 육까지 그 마음 따라 흘러가게 된다. 결국 육도 마음도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
62. 뇌가 죄의 생각을 하고 잡생각을 할 때 그냥 놔두면, 결국은 뇌에서 생각한 것을 몸으로 행하게 된다. 자기 뇌는 자기 몸이다. 고로 얼마든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도 성자도 “네가 다스려라. 네가 너를 다스리도록 아예 뇌를 그렇게 창조했다.” 하셨다. 자기 책임이다.
63. 자기 마음은 성적인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안 하려 한다. 그런데 자꾸만 성적인 생각과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뇌세포에 성적인 것과 나쁜 것들이 이미 녹화되어 배어 있기 때문이다. 고로 뇌 속에 녹화되고 배어 있는 것들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니 네 뇌를 비워 내고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으로 꽉 채워 뇌를 깨끗이 세탁해라!
64. 말씀으로, 성자 사랑의 생각으로, 성령으로 네 뇌를 꽉~ 채워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뇌에 녹화된 대로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성자의 생각으로 시동이 걸리고 돌아간다.

65.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는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했고, 썩는 냄새가 가득 풍겼다. 그러니 생각까지 그렇게 돌아갔다. 월명동 땅 자체가 썩어 있으니 그러했다. 개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소나무를 심으니, 하나님의 자연성전이 되어 꽃향기와 솔향기가 진동했다. 네 뇌도 이 같이 하나님의 자연성전이 되게 만들어라.
66. 사람이 자기중심대로 행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뇌가 오물이 가득한 쓰레기통이 된 것이다.
67. ‘뇌’를 깨끗하게 해야 ‘마음’도 ‘몸’도 깨끗하게 된다.
68. 사람들은 썩은 세상의 문화를 삶의 정상 예술로 생각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이며 인간의 표준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 문화, 죄 문화로 영이 사망권에서 고통받는 문화요, 육도 사망권의 삶인 문화다. ‘죄’와 ‘의’를 분별하지 못한다.
69. 하나님도 성자도 구원자도 ‘뇌’에 ‘말씀의 이메일’을 보낸다. 그러나 뇌가 썩어서 다른 생각이 차 있으면, 이미 뇌세포가 다른 것으로 굳어 있어서 ‘말씀의 이메일’을 못 받는다.
70.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말해도 마음에 녹화도 안 되고 들어가지도 않는다. 뇌가 굳어서 다른 것이 입력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성자의 말도 안 들어가고, 좋은 말도 안 들어가고, 죽음의 경고를 해도 안 들어간다.
71.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도 뇌도 마음도 혼도 영도 힘이 없다. 고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한다. 그러니 기도하

여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힘을 받고 하라는 것이다.

72. 기도하면 ‘뇌’로 성자와 통하게 된다. 고로 알 것을 알게 된다.

73. 기도하면 육도 뇌도 마음도 혼도 영도 천국의 형체로 변화가 빨리 일어난다.

74. 기도하면 꿈에 자기 혼과 영의 상태를 보게 되고, 성자의 계시를 받게 되고, 앞날을 알고 미리 화를 피하게 되고, 미리 행하여 얻을 것을 얻게 된다.

75. 기도해야 자기 육신의 병을 느끼고 알고, 죽음 전에 병을 고치게 된다.

76. 기도해야 사탄과 악한 자가 피어도 알고,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77. 기도해야 전능하신 성자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깨닫게 된다.

78. 기도해야 담대해져서 전도도 하고, 시대 말씀도 외치고, 각종 것을 행하게 된다.

79. 기도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가 함께하여 돕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

80. 기도해야 새벽 시간을 최대한 영적으로 쓰게 된다.

81. 기도해야 무엇을 행해야 휴거되는지 깨닫고 행하게 된다.

82. 기도해야 자기 운명이 좋게 되고 형통한다.

83. 기도해야 총명하고 명철해져서 정상적인 신부의 삶을 살게 된다.

84. 기도해야 차원 높여 휴거 100선, 200선, 300선에 갈 수 있다.

85. 기도해야 만사에 유익이 된다.

86. 기도해야 성자와 일체 되고 성자를 사랑하며 살게 된다.

87. 기도는 영과 육의 최고 에너지다!

88. 기도해야 자기 죄를 깨닫고 알게 된다.

89. 기도해야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게 된다.

90. 기도하면 죽음도 피해 간다.

91. 기도하면 성자와 그 분체와 동행하게 된다.

92. 기도해야 자기 혼과 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사망에 처했으면 끌어내게 된다.

93. 기도하면 성자께서 다시 기회를 주어 행하게 하신다.

94. 자기 책임을 못 해서 못 한 것인데 성자께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 다음 기회는 없다. 이번에 하면 성자도

계획적으로 도와서 하게 해 주신다.

95. 제때 하면, 성자도 분체도 옆에 있을 때 하게 된다.

96. 기회를 놓치고 하면, 외롭게 쓸쓸하게 해야 된다.

97.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사탄이 개입하여 잔인하게 고통을 준다. 고로 정말 급히 회개해야 된다.

98. 기도하면 육신이 죽을병도 고쳐지고, 사망에 처해 지옥에 가는 영을 살려서 천국까지 가게 한다!

99. 기도 조건을 세워 개인·가정·민족·세계를 살리게 된다.

100. 기도해야 자연 표적이 일어나고, 생명 구원 표적도 일어난다.

101. 기도해서 사명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자와 분체와 교통하면서 행하여라.

102. 기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대화다.

103.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 병어리다.

104. 기도해야 영감이 번쩍 스치고, 만물 계시를 받고, 번개같이 깨닫고 행동한다.

105. 기도해야 꿈에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낮에도 흐릿하게 생각되던 것이 확실하게 생각되고 감동되어 행하게 된다. 고로

얻을 것을 얻는다.